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10월 6~8일, 교회당서 ... 기증물품 접수 내주부터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99 열린 바자가 10월 6일(수)부터 8일(토)까지 3일간 우리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번 바자는 새 예배당 건축에 성도들의 관심을 모으는 한편 건축기금을 마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 바자는 성도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농어촌 자매교회와의 유대를 돈독히 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마련됐다.

바자에서는 성도들의 기증품을 접수하여 이를 판매하는데 각 가정에서 활용가능하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중고물품,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더 유용할 물건들을 모으게 된다(목록은 3면 참고). 접수는 다음 주일(19일)부터 시작하며 평일에도 접수한다.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또 이번 바자에서는 100교회운동으로 우리 교회와 결연한 농어촌 자매교회의 농수특산물도 판매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성도(타교회 교인 포함)가 기증한 상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바자는 교회설립기념일을 앞두고 비전2020운동 기간에 개최되는 만큼 전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이번 바자를 전도대상자와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지역복음화의 밑거름이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바자를 위한 행사 조직은 아래 <표>와 같다.

### 서울교회 바자 발자취

- ▶ 1993년 11월 12일(금) ~ 13일(토): 청년부 주최 모음과 나눔의 장
- ▶ 1995년 6월 14일(수), 19일(월): 여전도회 주최 파키스탄·방글라데시·국내 농어촌 목회자를 위한 모음
- ▶ 1996년 5월 2일(수) ~ 3일(목): 새 예배당 건

- 축을 위한 모음과 나눔의 장
- ▶ 1996년 8월: 수재민을 위한 모음
- ▶ 1996년 10월 23일(수) ~ 24일(목): 교회 설립 제 5주년 기념 바자
- ▶ 1997년 10월 23일(목) ~ 25일(토):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 ▶ 1998년 7월 9일(목): 시민대학 수강차를 위한 모음과 나눔의 장
- ▶ 1998년 10월 14일(수) ~ 16일(금):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 '99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 조직

- 대회장 이종윤 목사
- 고문 임광식 장로 이용선 장로 이남호 장로
- 지도 정윤돈 목사 실행위원장 정병무 장로
- 서기 김영준 장로
- 회계 오정수 장로
- 총무 박철훈 장로
- 기획부 하영수 행정옥
- 관리부 왕경래 윤찬오
- 시설부 박두호 임훈규
- 판매부 김태기 이복규
- 섭외부 이영기 이만생
- 홍보부 김광신 이완형
- 재정부 노문환 김세재

판매장	고문	사장	전무	총무	회계
1·2점포	이성득	오정수	정병무	이혜순	이은희
3·4점포	정윤돈	전기섭	김태기	정동호	박미혜
5·6점포	고정선	민순규	노문환	백수남	김정란
7·8점포	고정선	서문석	야영기	최정희	제오복
9·10점포	이규정	최종지	성준경	최영란	김선영
11·12 점포	이규정	홍정호	김광신	허숙	최일준
위탁점포		노송성	김세재	허상한	강희자
특판점포		윤봉준	신용식	서창원1	김금준

### 서울성경대학 · 목회자신학세미나

## 지난 주간 개강

지난 주간에 제 6학기 서울성경대학 갈라디아서반, 사무엘상반, 스바냐반, 느헤미야반과 음악교실 및 리더양성반이 개강했다.

서울성경학교의 강좌는 각각 10주간 계속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세번째 강의가 진행될 때까지는 계속 등록을 받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 주간에 첫 강의를 놓친 성도들도 다음 강

의부터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제 1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도 6일(월) 서울 강남YMCA 대강당에서 시작됐다.

제 1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새로운 시대의 섬김 목회 모델"이라는 주제로 11월 8일까지 10주간 매주 월



요일에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각 분야의 섬김 사역을 연구하며 기도하게 된다.



이사야 강해

# 징계와 자비

이사야 27장 7 - 13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어있습니다만 징계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징계의 성격이 다르고 정도와 목적이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는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바벨론을 때리시는 때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 1. 하나님 백성의 맞는 때는 망할 백성들이 맞는 때와 같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은 때를 맞을 징계의 시간에도 긍휼을 힘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억압한 백성에게는 징계의 날이 곧 망하는 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과 저들을 괴롭힌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때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 (1) 정도가 다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백성을 어렵게 한 이방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될 것이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악이 되고 오히려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때리시되 아주 적당하게 때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적당하게 견책하시므로 그들을 바벨론으로 쫓으셨습니다. 징벌이 없는 성도는 사생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일시적 징벌을 통해 성도는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히 12:5 - 13).

때를 맞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십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싶으나 우리가 범죄하므로 잠시 노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때를 드십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때를 맞는 날은 망하는 날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이방인에게 하시는 것과 정도가 다릅니다.

### (2) 의도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때를 드심은 죄를 깨닫게 하고 악습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연단을 시키어 강건하게 하시고 멸망을 면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므로 이스라엘은 회개를 하였으나 이방인은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드시는 때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3) 결과가 다르다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날이 오지만 하나

해가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 3. 징계 후 구원의 백성을 모으신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12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진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으나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시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들 갈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 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들 먹어 없이하리라...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앗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종운 목사

님 백성을 압제하던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의 성읍은 견고했으나 하나님의 때를 맞은 후에는 적막해졌습니다. 황무하여 버림받은 광야가 된 것입니다. 또한 짐승이 먹고 누우며 나무가지가 없게 된다고 했으니 이것은 재건할 수 없도록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읍의 종말은 불사름이 되어 영영 없어지고 맙니다(히 6:8).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불사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이방 나라는 불타서 영영 없어지도록 하셨습니다.

## 2. 징계 후 불신자는 망하게 된다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시 14:1, 신 32:28).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11절).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는 인간의 악함을 모르고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우상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므로 저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

하나님은 민족적 회개를 재촉하시지만 성경은 개인 구원을 선포합니다. 징계를 하신 후에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 하나 모으십니다. 그리고 창일 하는 하수, 곧 유브라데스 강부터 나일강까지 흩어져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앗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13절). 여기서 나팔소리는 포로로 있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나팔소리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애굽으로 쫓겨난 자들과 앗시리아에서 망할 자들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날에 일어날 대사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우리의 최대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故 김미경 집사를 추모하면서 ●

# 찬양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허숙 (집사, 12교구)

오랫동안 임마누엘찬양대와 시온찬양대를 함께 섬기던 김미경 집사님을 떠나보내고 돌아서는 저의 발걸음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세상을 떠나기에 아직은 너무 젊고 아까운 나인데... 그러나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영안실을 찾았을 때 통곡하시는 김미경 집사님의 어머니를 보며 참으로 가슴이 메어지는 듯 했습니다. 처음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병의 중환 보다 충격 받으실 어머니의 걱정이 앞섰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흑시라도 가족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을까를 걱정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머니과는 생전에 친구처럼 자매처럼 지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시신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에게 감히 위로의 말조차 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미경 집사님은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귀한 믿음의 선물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구원을 위해서 깊이 기도를 하며 한 분, 한 분 주님께로 인도하고 조카들을 교회학교로 데리고 와서 잘 부탁한다고 하신 김미경 집사님이 저들도 눈에 선합니다.

김미경 집사님은 그 가정의 순교자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 당한 자와 같이 살았는지 모르나 지금 아버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김미경 집사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큰 면류관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온 가족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 김미경 집사님에게 주님은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를 적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더 많이 사는 것이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오랜 투병생활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가신 김미경 집사님은 지금이 오히려 행복할 것입니다.

유난히도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지금도 김미경 집사님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김미경 집사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순례 길에 만난 사람 ●

#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삶을 살고자



3개월 전 새로 부임하신 정윤돈 목사님을 만났다.

- 언제 목회자가 되시기로 결심하셨는지

“제 어릴 적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를 드리는 중 목회자가 되고픈 소원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인 응답을 못한 상태에서 문과로 옮겼고 대학에는 경영학과로 진학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하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영어 성경을 암송하면서 주님의 요모한 말씀에 점차 매료되어 갔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성경을 배워 알고 싶은 생각이 목회자의 기로 들어서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퇴직해 사모님을 만난 계기는

“실은 신학교 동창생입니다. 저는 조직신학을 공부했고 아내는 신약학을 공부했습니다만 결혼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딸(승세, 7살)과 아들(성민, 6살)을 양육하느라 아직 논문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계획은

“일제심방이 이제 시작됩니다. 11월까지 이어지는 이 심방기간을 통해 성도들의 기도제목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간 목회 활동 중 전도와 선교에 경험이 많으시고 그만큼 열정도 있으시며 중국 선교에 비전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관련,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나 문화도 등 선교를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돕는 일은 중단없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 앞치마, 각종 덮개...

▶식품

· 병 · 캔 음료, 인스턴트 식품, 저장식품, 차, 한과...

▶기타

· 부동산, 회원권, 주식, 자동차, 카메라, 개인 소장품, 상품권, 도자기, 시계, 액자, 그림, 서예, 조각품...

##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 모이고 나눌 물건들

기증 가능한 물건들(중고품 포함)

▶의류

- 신사복, 숙녀복, 아동복, 운동복
- 사용하지 않은 내의, 양말, 타올, 손수건

▶잡화

- 장신구, 구두, 핸드백, 벨트...

▶가구

- 소파, 탁자, 식탁, 책장, 장식장, 옷장, 아기 침대, 거울, 의자, 침대...

▶전자제품

- TV, 라디오, 오디오, 비디오, 녹음기, 전화기, 밥솥,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전기스탠드, 다리미, 전기난로, 헤어드라이기, 믹서, 주서, 토스터, 전기장판, 전기담요, 공기정화기, 전기남비, 전기면도기...

▶그릇

- 각종 식기, 찻잔, 수저, 티스푼, 일회용 그릇, 조리기구, 주방용품...

▶장난감

- 인형, 놀이기구, 블럭쌓기, 보행기, 세발자전거, 모빌, 미니카...

▶학용품

- 공책, 연필, 크레파스, 물감, 붓, 팔레트, 필통, 지우개, 칼, 자, 가위, 풀, 볼펜, 책가방, 신발주머니, 망원경...

▶악기

- 바이올린, 실로폰, 멜로디언, 리듬악기, 기타, 크로마하프, 펜플룻, 리코더, 피아노, 첼로, 실로폰, 피리...

▶서적, 테이프

- 신앙서적, 아동도서, 전집류, 사전류, 동화책, 그림책, 성경책, 찬송가, 설교테이프, 회화테이프, 단행본, 백과사전, CD...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 컴퓨터,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스캐너, 컴퓨터 책상, 프린터, 디스켓...

▶운동기구

- 자전거, 아령, 홀라우프, 볼링용품, 배드민턴, 테니스채, 골프채, 각종 운동기구...

▶침구 및 수제품

- 이불, 방석, 등받이, 베개, 커튼, 담요, 식탁



주일 오후 1시 2층 예배실. 전자음향을 배경으로, 때로는 맑은 피아노 소리를 깔고 찬양소리가 울려 퍼진다. 1백여명의 젊은이들이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목소리를 높인다.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다. 대학부와 청년부의 젊은이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간간이 어린이도 보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들 성들성 앉아 함께 목소리를 모은다.

우리 서울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이 주축이 된 찬양의 시간이 마련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모임은 필그림찬양팀이 이끌고 있으며 주로 현대적 감각의 복음송가가 소개된다. 이 시간은 새 예배당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영적 부흥을 기대하는 젊은이들이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와 양육의 균형적 성장을 강조하며 찾은 시간이다.

"찬양은 마음의 문을 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가하는 한 청년은 이렇게 고백한다.

이 집회는 최근 청년부와 대학부의 새로운

움직임의 일단이기도 하다.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대학에 개설된 LTC과정 등에 참여하는 등 리더로 쓰임을 받기 위한 훈련에 적극적이다. 현재 청년부가 펴고 있는 운동 중 하나로 SKY(Save Kang-nam Youth) 운동도 있다. 이른바 강남지역 젊은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운동으로 영어식 표기의 첫글자를 땀다.



필그림

### 막힌 담을 여는 찬양의 시간

청년부에선 이를 위해 수요기도회에서 힘을 모아 기도하고 있다.

최근 감지되는 이러한 새로운 바람은, 그러나, 그 관심의 크기에 비해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은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의 폭이 그리 넓지 못하며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도 일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필그림찬양팀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놀라

운 계획과 비전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찬양을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찬양팀을 위해 보다 큰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다 철저한 도구로 쓰여질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기도합니다." 결음마 단계에 있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아직은 많은 기도와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것 같다고 청년부 한 회원은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힌다.

"청년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걸음을 그리로 옮기기가 쉽지는 않네요." 한 중년의 집사님의 말씀이다. "찬송가를 잔잔히 부르며 은혜받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부끄럽지만 아직 익숙하지 못한 찬송가도 있거든요."

이제 이 찬양의 시간이 시작된지도 3개월이 지나고 있다. 필그림찬양팀에서 헌신적인 열정을 갖고 봉사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요구되고 있다.

### 모세선교회 노인복지관 회원 초청잔치

모세선교회는 16일(목) 오전 11시 옥탑층에서 노인복지관회원 초청잔치를 갖기로 했다.

60세 이상의 남성도로 구성된 모세선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뜻있는 행사를 하기로 하고 교회 인근에 있는 반포 1동 노인복지관 회원들을 초청했다. 이날의 잔치는 이종운 목사의 말씀 선포에 이어 점심식사와 친교의 시간을 갖고 초청된 복지관 회원들에게 영정사진을 제작하여 선물하기로 했다.

이 잔치에는 모세선교회 회원 전원(부부동반)과 당회원 전원의 참석이 요망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84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84회 총회가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서울 영락교회당에서 열린

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인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이며 우리 교회에서는 이종운 목사와 박철훈장로, 오정수 장로가 강남노회 총대로 참여하게 된다.

### 툼 휴스턴 목사 오늘 저녁 설교

영국의 톼 휴스턴 목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 저녁 찬양예배 시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설교한다.

툼 휴스턴 목사는 월드비전 국제 총무 및 세계로잔위원회 국제 총무직을 역임한 바 있다.

#### ■ 동정 ■

- \* 이번 주 식사는 이복규·한명순 집사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 \* 호산나찬양대는 13일(월) 새예배당 건축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 이사 ■

- \* 김경희 권사,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공원 아파트로(☎ 546-8075).

### 순례자 지령 400호!

지난 1991년 11월 24일 교회설립과 동시에 출범한 <순례자>가 이번 호로 지령 400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순례자>는 부족하나마 문져선교의 도구로, 서울교회 성도들의 소식지로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 다. <순례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순례길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소식, 간증, 수필, 일기, 시, 의견 등 어떤 분야든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글을 기다립니다. 원고는 순례자편집위원에게 직접 주시거나 E-메일(pek9@chollian.net) 또는 팩스(536-9641)로 보내시면 됩니다.

####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서울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를 위해
2. 서울성경대학과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3.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 예배 및 집의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 교외약도

